

광주시 '명예의 전당' 전면 개선한다

이용섭 시장, 확대간부회의
공정한 기준절차 마련 운영방향 개선
지역사회 귀감 시민·단체 헌액 할 것



이용섭 광주시장이 19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광주시가 성범죄자 등 부적절한 인물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2021년 1월 15일자 2면)과 관련해 '명예의 전당'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9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명예의 전당"에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는 분들이 헌액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운영방향을 전면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광주시는 지난 15일 시청사 1층에 '명예의 전당'을 조성하고, 역대 광주시민대상 수상자 153명과 아너소사이어티 114명을 헌액했는데 이 중 성추행 사건에 휘말린 인사 등이 포함돼 지적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증진에 기여한 분들을 기리기 위해 시청사 1층에 명예의 전당을 조성했는데, 이번 명예의 전당 개관 사례는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깊은 검토와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일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부작용과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면서 "자치행정국에서는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훌륭한 분들이 헌액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대상 시기와 공정한 선정 기준 및 투명한 검증 절차 등 명예의 전당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예를 들어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분, 각 분

야에서 광주를 빛낸 인물,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싸운 헌신적 의료인, 일상 속에서 나눔과 연대를 실천한 존경받는 시민 등이 헌액될 수 있어야 한다"며 "아울러 명예의 전당에 부적절한 인물이 헌액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위원회의 위원을 대폭 보강하고 심의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명예의 전당 세부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을 확인하는 사전검증 절차와 헌액 후에도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자, 광주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등에 대한 헌액을 취소하는 내용 등을 담기로 했다. 또 현재 헌액된 인사들에 대한 검증을 통해 문제점이 있거나 명예의 전당에 적절치 않을 경우 헌액 철회 등의 절차를 밝기로 했다.

이 시장은 이날 아동보호체계 강화도 주문했다.

이 시장은 "얼마 전 서울에서 16개월 입양아가 양 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인권도시이자 아동친화도시인 광주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보호 정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여성가족국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에 서부터 조기 발견, 학대 상담과 조사까지 빈틈없는 보호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며 "경찰, 자치구,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협업체를 구축해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현장 대응,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또 "올 연말까지 시와 자치구에 배치 예정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19명)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충원하라"면서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를 아시아 스포츠마이스 거점도시로

문광부 주최, 27일 김대중센터서 '광주 희망마이스 포럼'

광주를 아시아 스포츠마이스 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전략과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더킹핀(TheKingPin) 등이 주관하는 '광주 희망마이스(MICE) 포럼'이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온라인으로도 중계된다. 이 포럼은 '스포츠로 하나되는 아시아, 스포츠마이스도시 광주'를 주제로 열린다. MICE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의 네 분야를 아울러 말하는 서비스 산업 용어다.

이번 포럼에서 이이남 작가의 '미디어아트 본 스포츠마이스도시 광주' 퍼포먼스가 개최되고 함께 펼쳐지고 주제 세션 1에서는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개회의 주역인 김윤석 사무총장이 '스포츠 MICE 도시 광주의 미래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토론에는 '스포츠 MICE도시 광주 조성을 위한 대응안'을 주제로 박주희 국제스포츠 전략위원회 사무총장, 배상봉 브라보앤뉴 스포츠본부장, 이평형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특별대담에서는 김윤석 사무총장과 김원수 전 UN 사무처장이 '스포츠마이스도시 광주' 조성에 필요한 전략과 노하우를 들려줄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주제 세션 2부에서는 기보배(양궁), 남현희(펜싱), 조준호(유도) 등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 메달리스트들이 스포츠마이스도시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세션 3부에서는 '지역기반 K 컨벤션 육성 방안'에 대해 정정숙 광주관광재단 관공진홍팀장의 주제발표와 지역 마이스업계 기관·기업들이 '광주지역 마이스업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사항을 건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편 이번 포럼 참가를 위해 25일까지 온라인 사전신청 (<http://naver.me/5ncfovMM>)을 하면 선착순 400명에게 네이버페이 1000원 상품권이 지급된다. 당일 포럼 중계는 전국민 누구나 유튜브채널 광주희망마이스포럼, 광주관광TV와 희망마이스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18~19일 코로나 확진 22명...광주·전남 지역감염 계속

다중시설 중심...사망자도 발생

요양병원·어린이집 등 광주·전남지역 다중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에선 지난 18일과 19일(오후 6시 현재) 각각 8명, 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전남에선 18일 6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후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확진자 8명(광주 1453~1460명)이 추가됐다. 7명은

효정요양병원 환자들이며 1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이 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3일마다 실시하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양성 이 나왔다고 시는 밝혔다. 효정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는 환자 106명, 직원 32명, 가족·지인 15명 등 153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도 나왔다. 이 병원 환자로 지난 16일 확진 판정을 받고 빛고를 전남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70대가 이날 오전 6시 숨졌다. 코로나 19 관련 광주 사망자는 14명으로 늘었다.

전남에서는 영암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모양새다. 지난 18일 영암 원광어린이집 교사와 그의 남편, 원생 2명 등 4명(전남 665, 667-669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남 방역당국은 어린이집 원생, 교사, 가족 등 70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 4명 외에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화순(전남 664번) 확진자의 경우 경기도 수원 확진자와 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조사됐으며, 영암(666번) 확진자의 경우 자녀인 전남 654번 확진자 접촉에 따른 자가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박진표 기자 lucky@/김형호 기자 khh@

바이든, 1986년 전두환에 편지...“민주화 탄압행위 우려”

1987년 솔츠 美 국무장관에 편지...정치범 석방 노력 요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986년 2월 전두환 당시 한국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민주화 이행에 대한 전두환 정권의 약속을 신뢰하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정권의 태도 전환을 촉구한 기록이 공개됐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이 19일 발표한 사료에 따

르면, 바이든 당시 미국 상원의원은 1986년 2월 20일 존 케리 등 동료 상원의원 7명과 함께 "1988년 대통령 선거 직전제 개헌 서명운동을 탄압하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썼다. 이들은 "김대중과 김영삼 등 한국 민주화 지도자를 탄압하는 것을 볼 때 민주화 이행에 대한 전두환 정권의 약속은 신

뢰하기 힘들다"며 "현재 정책을 바꾸고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당시 신민당과 민주화추진협의회(민주협)는 직선제 개헌을 위한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시작했고 전두환 정권은 신민당사와 민주협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 운동을 탄압했다.

1987년 11월 20일 바이든 당시 미국 상원의원은 동료 상원의원 30명과 함께 솔츠 당시 미국 국무장관에 편지를 보내 전두환 정권이 양심수 불리하는 정치범을 전면적으로 석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올해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정부, 한시적 상향...전남도,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

전남도는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선물한도가 2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함에 따라 대대적인 설맞이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남도장터를 비롯 해 남미소, 보성물 등 시·군 온라인 쇼핑몰에 선물세트 준비하고 설맞이 특산품 할인행사 및 고품 이 벤트를 펼친다.

남도장터는 선물한도 인상에 맞춰 한우, 전복, 굴비, 건강기능성 식품 등으로 구성된 49개 선물 세트를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가격대로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품목별로 최고 76%까지 할인하는 행사도 진행중이다.

해남군이 직영중인 해남미소는 도라지 사과, 한우, 황칠진액 등 20여 가지 제품을 선보이며, 품목당 최고 30%까지 할인해 준다. 특히 해남군에서 생산된 쌀, 잡곡, 김, 다시마, 멸치, 함초 소금 등이 담긴 명품 꾸러미 세트를 10만원, 15만원, 20만원의 가격으로 구성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보성군의 온라인 쇼핑몰인 보성물은 녹차, 한우, 흑염소 진액, 금방이환 등 쇼핑몰 내 모든 제품을 품목에 상관없이 10% 할인해 준다. 이와 함

께 전남도는 도내 소재한 54개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소비자들이 선호한 한우와 더덕 등 농수 특산물로 구성된 10만원 이상의 푸짐한 설 선물 세트도 마련했다.

특히 수도권과 영남권 등 대도시에서 전남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 20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성남 소재 김스클럽 야탑점을 비롯 29일부터 2월 10일까지 롯데백화점 부산 광복점,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신세계백화점 광주 점에서 직거래장터를 개최해 판촉전을 벌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중인 '대한민국 농할(농축산물 할인)갑시다' 행사와 연계해 28일부터 농축특산물 추가 20% 할인행사(1인당 최대 1만원 지원)에도 나선다. 남도장터와 시·군 온라인몰, 대형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중소형마트 등에서 할인상품 구입 시 20% 할인을 지원하며, 전통시장에선 30% 할인 행사가 펼쳐진다.

강종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농수축산물 선물 한도액이 20만원으로 상향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농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010-9576-8289, 직통전화 062)464-9706

로차·다가구·주택용지, 임야 매매

1. 다가구 및 주택용지 ※ 주거 2중
담양읍 양각리 강변 관백재림, 독일 관광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 15분 공영주차장 도로 3면 포장 배수로 기반시설됨
경관수려, 정남향 교통요지 답 4220㎡(1,276평)
매 ㎡ 6십5만원

2. 임야 (전원주택 펜션 농가주택, 휴양소 약초재배 적합)

- 영암읍 학소리 계획관리지역 포함 7만6천㎡ 광주 35분 4차 국도 근접, 마을 변방 편백휴양림 30년생 1만주 식재 농지가용면적 5천㎡ 월출산 바라본 쾌적한 자연경관 전원주택, 펜션, 귀촌자 최상 ㎡ 5천원 금매
- 화순 도곡 신성리 광주 20분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5810㎡(전 포함) 지석강 바라본 마을변방 정남향 관백재림 경관수려 전원주택, 펜션, 휴양소, 최상 ㎡ 4만원 금매
-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 25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종전 밭으로 경작 평지 토질 마사토 22,140㎡ 각종 약초 재배 최상 현 지석강 맹지 자연림 소나무 자생 매 ㎡ 2만원
-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 25분 농림지역 도로접 62,740㎡ 휴양림 적용 다수 자생, 생약재배 적합 농가 주택가 ㎡ 5천원 금매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동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홀플러스 길건너편 동광주빌딩 내

분할 합병 공고

주식회사 한국전기 (이하 "갑"이라 한다) 와 태인건설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서기 2021년 01월 15일 각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전 기금 사업 영입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이 합병하고, "갑"의 분할된 부분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포괄승계하고, 양 회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각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제출일 익일부터 1개월내에 관계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서기 2021년 01월 20일

"갑" 상 호 : 주식회사 한국전기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중앙로 114 816호(차평동)
대표이사 : 조현준

"을" 상 호 : 태인건설 주식회사
소 재 지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동남로45번길 9
대표이사 : 이기숙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광영희(400515-XXXXXX)
· 최후주소 : 여수시 여문2로 61, 903동 1013호 (문수동, 부영아파트)

피상속인 망 광영희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 정법원 순천지원 2020년단671호로 신청하여 2021년 1월 14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1월 20일

· 상속인 : 유형모(590928-XXXXXX)
여수시 덕양로 157, 307동 1205호 (화장동, 주공아파트)

· 신고기간 : 2021. 1. 20 ~ 2021. 3. 31.
· 채권신고처 : 상속인 유형모의 주소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光州日報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산행안내

1월 24일(일)
▲광주서산악회 1월 24일(일) 단산과 함께가고싶은! 북대유산 향적

봉 뽕산행, 염주체육관 07:30, 동아병원앞 07:35, 롯데백화점 07:40, 광주역 07:45, 문예후문 08:00, 비엔날레주차장 08:05 * 다음카페 광주서산악회 ☎ 010 7794 6920